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DECEMBER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4



### 골든클럽 운영위원회, 2025년 결산 및 2026년 운영 계획 논의

지난 11월 19일, 골든클럽 운영위원들이 뉴저지 가연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2026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운영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유난히 궂은 날씨로 인해 골프 대회가 다수 취소되었으나, 이를 대신해 진행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람(봄), 알파인 파빌리온 패밀리 피크닉(6월), 롱우드 가든 방문(7월), 캐츠킬 단풍 관광(10월) 등 비(非)골프 행사들이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운영진은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골프 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18홀 완주에 어려움을 겪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6년에는 골프 대회와 다양한 문화·여가 행사를 적절히 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초를 설정했다. 내년도 계획의 초안은 올해의 성공적인 행사들을 기준으로 낱씨를 조정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일정으로는 2026년 신년교례회가 3월 7일(금) 오전 11시 힐튼 호텔에서 주간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며, 야외 행사로는 6월 모호크(Mohonk) 방문과 가을 미네와스카(Minnewaska) 주립공원 방문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골든클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만, 여주영, 금영천, 김병순, 이영범, 윤현남, 김정필]

## 뉴욕골든클럽 2026 신년교례



2026년 3월 7일 (토) 11시

2026년 골든클럽 행사를 시작하는 신년교례회가 3월 7일(토), 올해 행사를 가졌던 Hilton Hotel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야간 운전이 불편하여 참석이 어려운 선배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주간으로 변경하고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서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4시  
**장소:** Hilton Hotel,  
 650 Terrace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회비:** 1인당 \$120  
**특별공연:**  
**기념선물:**  
 골든클럽 머그



## 2025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



친애하는 뉴욕 동문 여러분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끈끈한 동문애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히 젊은 동문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오니, 주위의 젊은 동문들에게도 많은 홍보와 참석을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12월 6일 (토) 오후 4시 ~ 7시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Grand Ballroom)  
**참가비:** \$120

### 주요 프로그램시간순서내용

- 1부 공식 행사감사 선임 및 차기 임원 소개,  
장학금 수여식,  
기념 촬영
- 2부 축하 공연동문 음대 출신들의 특별 축하 음악회
- 3부 여흥 및 경품  
즐거운 여흥 시간 및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경품 추첨

동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송년회는 동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자, 학업에 정진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동문 음대 출신들의 수준 높은 축하 공연과 함께, 여흥 시간에는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여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연말 추억을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연락처 및 문의사항:** 김병순 뉴욕동창회장  
 (703)407-4928 kbs8717@gmail.com

## 변화하는 골든클럽, 회원 중심의 다채로운 행사 모색

11월 19일 열린 운영위원회 오찬에서는 골든클럽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회원 고령화에 따른 행사 패턴의 변화 필요성'이었다.

### 골프 행사 운영 방식의 개선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골프 대회'였다.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골프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따라 험난한 지형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허드슨 힐스' 대신 평탄한 '메도우' 골프장을 이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한, 대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친목 도모를 위해 '무작위 조 편성'을 하자는 의견과 편안한 경기를 위해 '기존 친분 위주 편성'을 선호하는 의견이 맞섰으며, 시니어 티(Gold Tee)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도 대립했다. 운영진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연 1~2회는 무작위 편성을 시도하고 시니어 티가 잘 갖춰진 골프장을 우선 섭외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 비(非)골프 행사의 확대 및 구체화

골프 외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올해 호평받았던 문화 행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6월 행사로는 기존 피크닉 대신 경관이 수려하고 식사가 편리한 '모훙크 마운틴 하우스(Mohonk Mountain House)' 방문이 제안되었다. 가을 단풍 관광지로는 지난번 추운 날씨로 고생했던 캐츠킬 대신, 폭포 절경이 아름다운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이 추천되었다. 특히 미네와스카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사과 따기 체험을 연계하는 코스가 과거 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어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었다.

### 기타 논의 사항

신년 행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수직적 의미의 '하례(賀禮)' 대신 회원 간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교례(教禮)'를 사용하여 '신년교례회'로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 운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년 행사를 낮 시간에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기념품(머그잔) 제작 시 실용성을 고려한 색상 선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문준 전난준 부부 금혼식

전문준 (상대64) 전난준 부부가 11월 8일에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금혼식을 Westchester에 위치한 Bonnie Briar Country Club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골든클럽에서는 한태진, 홍종만, 김정필, 김병순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축하를 드리고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두 따님이 주최한 이날 모임에서는 잘 자란 손주들이 전문준 선배 부부에게 감사하는 편지낭송이 있었고 전문준 선배가 손녀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서 담례로 노래로 화답하였다.



이준행 명예회장 근황

11월3일 월요일 정오에 이준행회장님을 예방하였습니다. 임광수(전서울대총동창회장)님의 안부 소식을 전해 들은 이회장님이 옛날 공대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시절의 여러 에피소드를 들려 주셨어요. 본인은 97세이고 그친구는 98세라고 하시면서 현재 생존하는 유일한 친구인데, 매주 통화하며 지내다가 피차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몇년째 통화를 못하여, 몹시 마음아파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것을 빼고는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하여 보였습니다.

사진설명: 좌로부터 정수일(회원, 행정대학원), 이준행회장, 신현웅(문리대 64,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 웅진재단이사장, 전문체육차관), 이대영(회원, 문리대64)

## 2025년을 돌아보며

### 두 발로 걷는 즐거움

■ 홍종만 (공대64)

‘80대가 되니 많이 달라지더라’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나오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왔습니다. 매주 2~3회 Harriman 지역에서 5~6마일 산행을 하고, 가끔은 Gym에도 들러 운동을 하니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금년 봄 산에서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져 코피가 나고 이마에 상처가 생겼으며 무릎에 멍이 들고 손목을 빠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하산길에서 두 차례나 더 넘어지면서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70대 이후의 하이킹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년 1~2%씩 줄어드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큰 근육을 지탱하려면 별도의 하체 근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균형 유지 훈련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등산을 취미로 젊은 후배들과 어울리며, 내년 1월 말 Patagonia 트레킹과 9월 Alaska 원정 산행에 동행하기 위해 아침마다 1시간 동안 종아리 스트레칭, 족저근막·발바닥 운동, 골반 스트레칭, 까치발 서기, 사이드 플랭크, 스쿼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1시간 이상 골반 교정 운동, 고관절 스트레칭, 다리 근력 강화, 허벅지 앞뒤 근육과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기마 자세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와 고관절의 유연성은 물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10년 정도는 큰 불편 없이 걸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 한해를 보내며

■ 이영범 (공대71)

금년은 제게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깊은 정을 나누게 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22년 12월, 골든클럽 Florida Golf Trip에 처음 참가하여 인연을 맺은 것이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골든클럽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회원분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룡우드가든 여행은 제게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우중(雨中)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오가며 즐거운 오락 시간을 가지며 여행 내내 즐거운 운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마음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더 즐거운 만남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마음의 지평이 넓어진 한해

■ 여주영 (명예회원)

2025년 올 한 해는 어느해 보다도 감사와 배움, 마음의 지평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든클럽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인연을 만났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성찰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골든클럽 편집위원으로서 한 해의 기록을 함께 만들어 더욱 보람이 있었고, 작은 역할이라도 보탬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로의 걸음을 응원하며 따뜻하고 진솔한 기록을 정성껏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화하는 디지털 사기, 당신의 안전을 위협하다

■ 김병순 (사회82)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기 유형과 현명한 예방책

과거 손편지의 정성 대신 전화, 문자 메시지(카톡 포함), 이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전화 사기는 Voice Phishing(보이스피싱), 이메일 사기는 Phishing Email(피싱 이메일), 문자 사기는 Smishing(스미싱)이라 불리며 교묘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요 사기 유형 분석: 사기꾼들이 노리는 심리

사기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인간의 당황, 불안, 욕심, 외로움 등 다양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주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유형	주요 수법 및 특징
금융/관공서 사칭	"계좌가 사기에 연루", "대출 승인", "세금 미납/환급" 등을 빌미로 개인 정보, 계좌 이체, 금융 정보 요구 (검찰, 경찰, IRS, 은행 사칭)
가족 납치/사고형	가족 관련 사고나 납치를 언급하여 심리적 혼란을 유도, 송금이나 개인 정보 요구
통신사/택배 사칭	"배송 불가", "요금 미납 서비스 중단" 등을 이유로 개인 정보나 결제 정보 요구
지인 사칭	해킹 등으로 지인 정보를 탈취 후, 딥페이크 목소리나 메시지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소액 융통 요구
복권/상금 사기	가상의 복권이나 경품 수령을 위해 개인 금융 정보 요구
약성코드 첨부	이메일/문자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약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여 원격 조정 및 개인 정보 탈취
로맨스 사기	연애/결혼/외로움을 미끼로 접근하여 신뢰 구축 후, 기발한 구실로 금전 요구나 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탈취



현명하게 사기를 피하는 5가지 예방 수칙

사기꾼들은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하며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의심하는 습관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 즉시 행동 금지 및 직접 확인:**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온 전화/이메일/메시지에는 절대 즉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나 채널을 통해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요구 시 철저한 의심:** Online ID, 비밀번호,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요구받았을 경우, 요구하는 기관/사람이 믿을 만한 상황인지 의심부터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지인 사칭 시, 별도 경로로 재확인:** 가족, 친지, 지인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경우, 전화나 다른 소통 수단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에 회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링크 클릭 전 발신자 검증:**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발신자 정보와 정식 도메인을 포함한 이메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로맨스 사기 경계:** 온라인 만남에서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과정을 거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사기꾼을 판별하기 어려운 사회이지만, 지나친 의심으로 오해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위의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사기는 편리함의 대가입니다.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 홋카이도 3박 4일 여행기

■ 천병수 (공대70)

지난 10월 한국 방문 중, 고교 동기 이영범(공대 71)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한국 여행사를 통해 홋카이도(북해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 단체관광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다녀오고 보니 '이런 여행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골든클럽 회보에 여행기를 올린다.

무엇보다도 여행 시기가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여서, 가는 곳마다 절경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전체 일정은 치토세 공항에서 시작해 노보리베츠 - 도야 - 아사히카와(소운쿄 포함) - 비에이 - 오타루 - 삿포로로 이어졌는데 바다, 호수, 계곡, 단풍, 화산지형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여정이었다.

**노보리베츠 - 일본 10대 온천, 지옥계곡의 숨결**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온천 마을 노보리베츠는 유황천, 식염천, 명반천 등 수십 가지의 온천수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으로 일본 10대 온천에 꼽힌다.

1만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구 지형을 따라 걷는 '지옥계곡(지옥다니)' 산책로는 뜨거운 수증기가 눈앞에서 뿜어져 나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유황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체험이었다.

호텔은 전통 다다미방이었고, 유카타를 입고 온천을 즐기는 경험도 이색적이었다. 저녁 식사에는 무제한 대게와 사케가 제공되었는데, 한국 영덕계에 뒤지지 않는 실한 대게다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가이드에게 '게다리 살을 가장 깔끔하게 발라 먹는 법'까지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 아침, 호텔을 떠날 때 종업원들이 차가운 날씨에도 밖으로 나와 일렬로 서서 정성껏 배웅해주는 모습은 일본 특유의 서비스 문화를 느끼게 했다.

### 도야호·우스산·쇼와신산 - 살아 있는 화산 대지



도야호는 둘레만 43km에 달하는 거대한 화산호수다. 로프웨이를 타고 우스산 전망대(우스 360)에 올라가면, 앞쪽으론 바다가, 뒤쪽으론 도야호가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그림처럼 이어진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쇼와신산이었다. 1943~1945년, 연속적인 지진과 함께 평범한 보리밭이 솟구쳐 올라 높이 398m의 새로운 산이 탄생했는데, 마을 우체국장이 지진 때마다 솟구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기록물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산 정상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살아 있는 활화산이다.

지금도 산 정상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살아 있는 활화산이다.

### 비에이 - 푸른 연못과 패치워크 언덕의 고요한 감동



'언덕의 도시' 비에이에서는 유명한 푸른 연못(아오이케)를 찾았다.

1988년 화산 분화 대비용 독에 물이 고이면서 생긴 호수로, 광물질과 온천수 영향으로 물빛이 예뻐랄드처럼 영롱한 파란색을 띤다. 이 연

못빛을 본떠 만든 파란 아이스크림도 색다른 재미였다. 가을이 깊던 시기라 꽃은 많지 않았지만, 트랙터를 타고 화원을 둘러보는 시간이 여유롭고 좋았다.

언덕마다 심어진 감자·밀·옥수수 등이 서로 다른 색의 면(面)을 이루어, 흔히 말하는 패치워크의 길이 차창 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졌다.

### 소운쿄 - 은하·유성 폭포와 흰수염폭포의 장관



아사히카와로 향하는 길목인 소운쿄에서는 은하폭포, 유성폭포, 그리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흰수염폭포를 보았다.

은하폭포는 가는 물줄기가 실처럼 흩어진 우아한 모습이고, 유성폭포는 한 줄기로 힘차게 떨어져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온천욕을 하며 눈 덮인 산과 가을 단풍이 함께 보이는 풍경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 외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오타루 - 오르골당과 달콤한 과자의 유혹

오타루에서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일본 최대의 오르골당을 방문했다. 15,000점이 넘는 오르골이 진열된 내부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오르골당 앞에서는 15분마다 증기를 내뿜는 증기시계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다.

낙농업이 발달한 홋카이도답게, 오타루 명물 과자거리에서는 버터 샌드·바움쿰·슈크림 등 달콤한 유혹을 피하기 어려웠다.



삿포로 - 오오도리 공원에서 마무리하는 여행

마지막 일정에서는 JR타워 전망대와 삿포로 중심의 오오도리 공원을 둘러보았다.

사계절 꽃으로 꾸며지는 이곳은 겨울이면 유명한 눈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여행의 여운을 차분히 마무리하기에 좋은 공간이었다.



가이드와의 만남 - 여행을 풍성하게 만든 특별한 인연

출발 전 여행사 가이드 이름만 보고 여성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연륜 있는 남성 이었다. 일본에서 학업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어 일본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 아이누족의 역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일본 권력 구조
- 일본인의 생활 철학(근면·절약·청결·신용)
- 한국인·일본인 비교 고찰

등 쉽게 들기 어려운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특히 일본식 가정에서의 '목욕 물 절약 문화'를 소개하는 대목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가이드의 직업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을 위한 철저한 봉사'였고,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덕분에 이번 여행은 더욱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다.

마무리

홋카이도는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넓은 땅에 바다·호수·온천·단풍·화산·계곡이 어우러진 자연의 보고였다. 이영범 동문 부부와 함께한 이번 여행은 기막힌 풍경뿐 아니라 좋은 인연과 정성스러운 안내가 더해져 오래 기억될 여행이 되었다.



회원 명단 (113명 / 2025-11-25)

강교숙	김상만	박상원	오순문	이대영	정해민	허유선
강에드	김승호	박준구	오용호	이영범	조상선	허유선
계동휘	김영덕	박희병	오인석	이용대	주재양	홍정표
고애자	김우영	배상규	우규환	이위곤	진봉일	홍정표
곽선섭	김익성	성기로	유무영	이전구	천병수	홍예경
권문웅	김정필	손갑수	육재희	이종대	천종화	
권정덕	김창수	손경택	윤선구	이종석	최병우	
홍선경	김충정	손대홍	윤상영	이준행	최준희	
권태전	김치갑	남종현	윤재욱	이흥빈	최진영	
금영천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임도혁	최한용	
김광수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호순	최학주	
김광현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전문준	한민우	
김동건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정도현	한영오	
김문경	노용면	송혜순	이상준	정수일	한용희	
김문언	문 선	신두식	이승준	조달훈	한태진	
김병순	민준기	신진식	이 준	조승자	한용희	
	박기환	신응남	이대연	정준영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5-11-25)

3월	13(목)	하이킹 (취소)
	22(토)	신년교례회 (82명 참가)
4월	10(목)	하이킹 (6명참가)
	24(목)	골프대회 - Sunset Valley (28명참가)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 Pelham
	29(목)	Metropolitan Museum 방문
6월	12(목)	Family Picnic (Alpine Pavillion)
	26(목)	골프대회 - Walkil Golf Club (취소)
7월	24(목)	골프대회 - Hundson Hills (32명 참석)
	31(목)	Longwood Garden 방문 (36명 참석)
8월	21(목)	골프대회 - Wallkill Golf Club (22명 참석)
9월	25(목)	골프대회 - Meadows Golf Club (우천으로 취소)
10월	16(목)	단풍관광 (41명 참석)
	23(목)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29명 참석)
12월	6(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7-13	Myrtle Beach Golf Trip
3월	7일(토)	2026년 신년교례회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86명 / \$8600 / 2025-11-25

강교숙	김상만	박희병	이상원	이상무	정수일	한민우
강에드	김승호	배상규	이행순	이승준	정준영	한용오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오순문	이영범	정해민	한태진
곽선섭	김우영	손갑수	오용호	이용대	조달훈	안용희
권문웅	김익성	손경택	오인석	이위곤	조승자	허용웅
권정덕	김정필	송근숙	우규환	이전구	조상근	홍정표
홍선경	김충정	송웅길	육재희	이종대	주상선	홍종만
권태전	김한중	송현자	윤상영	이종석	천병수	홍예경
금영천	김현중	송학린	윤선구	이흥빈	천종화	(2026)
김광현	문 선	송혜순	윤현남	이준행	최병우	김영덕
김문경	민준기	신두식	이대연	임도혁	최준희	이행순
김문언	박기환	신응남	이대영	임호순	최한용	
김병순	박준구	신진식	이강홍	전문준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29명 / \$13,700 2025-11-25)

강에드 300	배상규 200	이강홍 5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상원 100	임호순 300	(2026)
권정덕 500	손경택 1500	이영범 300	전문준 500	이행순 300
금영천 300	송혜순 200	이용대 300	정해민 2500	김영덕 1000
김상만 100	신진식 300	이위곤 100	최준희 300	
김옥수 200	오용호 300	이전구1000	최한용 500	
김한중 300	윤현남 400	이종대 200	한태진 5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육재희
정준영	문 선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1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언 (공대66)
- 김승호 (공대71)
- 신진식 (농대37)
- 오용호 (의대66)
- 허유선 (생과83)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